

강론 ...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묵시 22,20)



이정석 신부
(가톨릭 신학원)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빛을 모든 민족이 보게 된 것입니다.

마태오 복음 사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음을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의 경배이야기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구세주의 탄생은 유대인인 헤로데와 그 신하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게 했지만 오히려 이방인인 박사들은 하느님의 표징을 읽고 기뻐하며 아기 예수를 경배합니다(마태 2,3,9). 프와티에의 힐라리오 성인께서는 세 명의 박사들이 현정한 세 가지 예물이 각각 왕, 하느님, 인간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통해서 세상의 왕이시며 참 하느님과 참 인간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정체가 드

자신의 아들과 딸들이 이방인의 손에 유린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하느님의 도성 예루살렘에게 하느님의 빛이 비쳐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뿐 아니라 모든 민족의

리합니다. 하느님의 신비는 구원의 '기득권'을 쥐고 있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의 이해를 뛰어 넘어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것이야말로 하느님의 '신비의 계획'이라고 선언합니다(에페 3,9).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성탄 축일을 지내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우리 자신의 새로운 탄생과 삶의 의미, 즉 하느님의 자녀됨(요한 1,12)을 되새겼습니다. 박사들이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간직하고 다시금 왔던 길을 거슬러 갔듯이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 역시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모든 민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증언할 것'을(마태 28,19-20) 다짐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선물을 구원의 부적처럼 방안에 붙여두고 움켜쥐고 있는 한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분과 함께 다스릴 수(묵시 22,5)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뒤돌아보며 가슴을 치며 지난 과오를 뉘우친 까닭은 남을 위해서가 아닌 먼저 스스로의 미래를 위함이었음을 잊지 않습니다. 아멘.

입당송

보라, 만군의 주님께서 오시니, 그분의 손에 나라와 힘과 권능이 있도다.

제1독서 이사 60,1-6

회답송 시편 72(71), 1-2,7-8,10-11,12-13(◎ 11 참조)

◎ 주님,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제2독서 에페 3,2,3,5-6

복음 환호송 마태 2,2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복음 마태 2,1-12

영성체송 마태 2,2 참조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예물을 가지고 왔노라.

십자가의 성 요한(?-101)



윤 클레멘트 신부
교구청 사무처

그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제베데오의 아들, 성 야고보(큰 야고보)의 형제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었다.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손질하던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다. 그리고 그는 즉시 배와 아버지를 바닷가에 남겨두고 부르시는 스승을 따라 나선다(마태 4,22). 예수께서는 그의 강한 기질을 보시고 천둥의 아들이라고 부르시기도 하셨다.

그는 예수님의 열두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적은 막내였지만, 그는 자신이 쓴 복음서에서 종종 말했다. 자신이 얼마나 스승의 사랑을 받던 제자였는가를 …(요한 3,17,23). 그는 예수님의 현성용(顯聖容)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마지막 만찬을 들던 날에는 예수님의 머리맡에 있었다. 그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상 아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유일한 사도이기도 하다.

그러하기에 그는 열두 사도 중에서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상 증인이다.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신다. ‘어머니,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요한에게도 말씀을 주신다. ‘이분이 네 어머니입니다.’ 그때부터 사도 요한은 성모마리아를 자신의 집에 모시

고 돌본다. 성모 마리아께서 하늘나라로 떠나실 때까지….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49년에 에페소로 간다. 그는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며 또한 성모 마리아를 모시는 데, 성모마리아께서 지상에서 하늘나라로 몽소승천 때까지 보아드렸다고 전승은 전한다. 또한 전승에 따르면, 그는 파트모스 섬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는 묵시록을 쓴다. 그리고 일년후 다시 에페소로 돌아와서 4복음서와 세 서간을 썼다. 사도 요한이 자신의 네 복음서와 서간에 썼던 주제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1요한 4,7)라고 한마디로 말해볼 수 있는데, 그는 복음을 전하고 성모 마리아를 모셨으며, 복음서와 서간을 썼던 에페소에서 101년경에 이 지상에서의 생명을 마치고 하느님의 나라로 떠나갔다.

그는 사랑의 성인이라고 불린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고 그 자신이 사랑을 받았던 자신의 신적스승으로부터 배웠다. 그는 자신이 자신의 말씀들에서 표현 하듯이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느님을 아는 사람이었다. 사랑받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일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 아는 것일 테니까 ….

그는 그가 쓴 복음서에서 말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에게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은 오로지 사랑하는 것일 것이니 ….’

밀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지성의 황금인 신앙과 마음의 유향인 사랑과
의지의 몰약인 굳셈을 예수님께 바쳐야 합니다.”

(아름답고 보람있는 삶을 위하여 中 - 야고보 알베리오네)

끝내주는 환상의 목욕 특공대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노인 복지관으로 목욕 봉사를 간다. 네 명의 자매들이 한 조가 되어 십여분의 할머니들에게 그날 만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처음에는 차량봉사를 해 달라는 부탁이었으므로 흔쾌히 승락하였다. 그러나 그 시간에 혼자만 반등거리고 놀 수가 없어서 동참하다 보니 오히려 배우는 것이 더 많아 몇 권의 책을 읽은 것보다 큰 깨달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온다.

언젠가 처음 왔던 그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서있는 사람들, 그들은 이제 이렇게 병들고, 허리는 굽어 낮아지고, 스스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작은 자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 나 같이 부실한 사람의 손에 의지해야할 정도로 말이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늙어가야 할 것인지를 저절로 목상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들이다.

손이나 발을 씻겨드릴 때면 어김없이 내 얼굴을 말없이 오랫동안 바라보시거나, 고마움을 표현하곤 하신다. 손과 발의 다양함 속에서 여태껏 살아오신 그분들의 인생을 섬세하게 가장 잘 읽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순간만은 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장면을 떠올리게 된다.

참으로 나약한 인간이기에, 한 줌 흙밖에 안 되는 인간이기에, 하느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인간이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없이 소중해진다.

처음 얼마 동안 경험이 없는 나를 염려하여, 때 미는 일은 자기네 몫으로 하고 비누질만 맡겨주었던 자매들의 속 깊은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자기 몸 하나 씻는 일도 힘이 드는데 치매 어르신들의 투정을 다 받아가며, 그것도 여러 분의 몸을 씻겨드리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감싸주는 법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어렵פות이 깨닫



마음의 눈으로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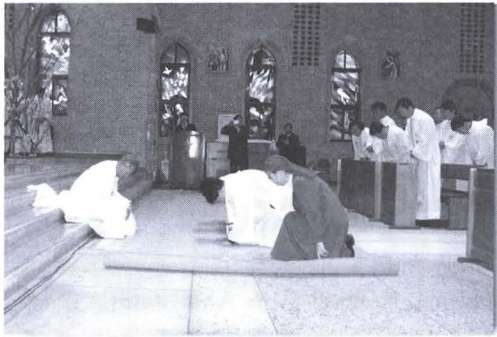
게 되는 것이 아닐까.

꼭 차 있던 목욕탕 안의 할머니들을 한 분씩 보내 드리고 나서, 대충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 자매들의 표정이 어찌나 밝고 환한지, 나는 그들에게서 천사의 얼굴을 본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다. '정말로 끝내주는 환상의 목욕 특공대' 라고.

글 : 김혜선(아네스) · 그림 : 황의성(세례자 요한)



교구 신년 하례식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1월 3일(화) 주교좌 중앙 성당에서 신년 하례식을 가졌다. 교구의 성직자·수도자·평신도대표 등 600여명이 성전을 가득 메운 가운데 회중들은 올 한해도 신앙의 여정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하였다. 교구장 이병호 주교는 신년 하례 미사에서 '너희가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라는 성서 말씀을 인용하여 "어떤 처지에서도 하느님 나라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며 곳곳이 살아갈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평신도 협의회(회장=서동호)가 작년 각 본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랑 봉사대상' 시상식이 있었다. 특별상은 교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다 불의의 사고로 작년에 고인이 된 지곡 본당 강태수 전 사목회장에게 수여되었다. 이날 수상은 고인의

내인 정경자(마틸다)씨가 대신하여 참석자들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대상은 소년소녀가장돕기와 극빈학생돕기, 어려운 이웃돌보기 등으로 하느님 사랑을 실천한 정읍 연지동 본당 빈첸시오회(회장=심재연, 요셉)가 수상하였다.

지난 1월 1일(주일)에는 중앙 성당(주임=김동준 신부)에서 천주의 모친 대축일미사가 이병호 주교 집전으로 봉헌되었다. 이날 이병호 주교는 평화의 날 메시지를 통해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름을 말씀하시며, 우리 모두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를 성모님께서 "마음속 깊이 새겨 오래 간직하셨다"라고 하셨던 믿음의 태도를 본받아 잘 간직하고 살아갈 것을 당부하셨다. |신현숙 기자

● 교구청 직원 종무미사

지난 12월 30일(금) 오후 4시에 가톨릭 센터 3층 강당에서 교구청 직원 종무미사가 이병호 주교 주례로 봉헌됐다. 한해를 되돌아 보며 지난 삶을 반성하고 새해에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더욱 열심히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홍보국 취재



● 교구 빈첸시오회 자원봉사자 연합회장상 수상

교구 빈첸시오회(회장=윤운철)는 지난 12월 23일(금) 전주시 자원봉사센터(회장=황의옥)가 주최한 2005년도 전주시 자원봉사자 결산대회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전주시 자원봉사자 활성화와 아름다운 전주 만들기에 기여한 공으로 전주시 자원봉사자 연합회장상을 수상했다. 전주교구 빈첸시오회 현 회장은 양쌍수

(팔복동 본당) 형제이다.

|이관영 기자

● 금암동 성당 빈첸시오회 금암동민 경로 위안잔치

금암동 성당 빈첸시오회(주임=김요한 신부, 회장=나정순)는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사랑의 희망열차 전문이동 봉사단과 공동 주최로 교육관에서 금암동 관내 노인들을 모시고 조출한 경로위안잔치를 베풀었다. 이날 행사는 초청 연애인의 흥겨운 위로 공연과 술과 음료, 음식 등

천주교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

형제적 사랑으로 제주관광 및 성지를 정성껏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의해주시면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차량·호텔 예약 문의
☎(064)758-6476 H·P 011-697-6476

100번 수산

삼천동 농협 공판장내
홍어, 조기, 갈치 외 고급생선 도·소매
227-7877 / 010-7153-8045
이미숙(리디아)

서울방사선과 MRI센터

MRI촬영(전신), C-T촬영(전신)
X-Ray 특수촬영 및 투시
칼라 초음파 검사, 유방 촬영
원장 : 방사선과 전문의 박민숙(아나타시아)
원장 : 방사선과 전문의 정진영
☎(063)278-1312~3

유* 사랑 외과

유방 전문 클리닉
유방암 검진
원장 소우 성(스테인노)
서신동 E마트앞
☎(063)253-6075

익산 효성고등학교

2006학년도 신입생모집 /
인문계 남·여공학 180명
원서접수 : 원서접수순 마감
입학상담 : 063-858-9831~3
전영길·박경례(소화대사)

온고을 행복한 한의원

추나/홍채진단/
한방내과/침구과
야간진료 : 월요일, 목요일
원장 / 한의학박사 김경수(미카엘)
☎ 063-254-3375
서신동 본병원 사거리 건강나라역국 3층

차질·대장 수면 내시경 전문

전주 향원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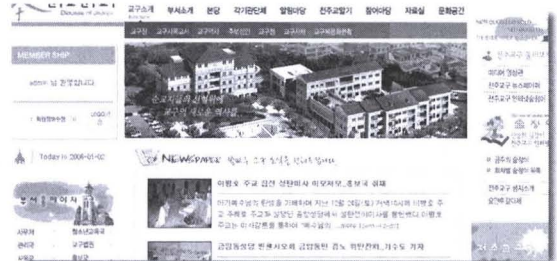
평화동 사거리-중간-한국통신 사거리
원장 전문의 전관희(루가)·이관재
☎ 228-6002~3

최고의 전국 꽃배달서비스 진선미 꽃집

범근배(방지거)·박선자(루시아)
중화산동 병성경리장~도청사이
☎ 222-0004



나눔의 잔치에 이어 이발, 미용, 수지침, 어혈 등 전문 봉사들을 실시해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기수도 기자



△회원들에게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제공을 위한 콘텐츠 구성 △회원들의 커뮤니티 공간 마련 △문화사목의 강화를 위해 문화 콘텐츠 강화 △역동적인 홈페이지를 위해 교구 영상관 콘텐츠 구성등 기존의 콘텐츠를 잘 정리·보완하여 회원들에게 손쉬운 정보제공을 해 줄 것이다. 그리고 보다 안정적인 디자인과 교구내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상관 페이지는 미디어시대에 보다 빠른 정보 제공 및 동영상 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다. |홍보국 취재

● 김창신 신부 모친 故 박영숙 자매 장례미사



지난 12월 28일(수) 오전 9시경에 어양동 성당 주임 김창신 신부 모친 박영숙 자매(미카엘라·78세)가 별세, 하느님 품안으로 돌아가셨다.

장례미사는 12월 31일(토) 오전 10시 이병호 주교 집전으로 나운동 성당에서 거행됐다.

김창신 신부는 이번에 함께해 주신 주교님과 70여명의 사제, 부제, 수도자,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들과 어양동, 나운동 성당 신자와 참석하신 모든 신자분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영수 기자

● 인후동 성당 성탄 초·중·고등부 입체미사



인후동 성당(주임=한기호 신부)은 지난 12월 25일(주일) 초·중·고등부 연합 입체미사를 봉헌했다. 기존의 성탄 행사에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실시된 이번 초·중·고등부 입체미사는 갈수록 감소되는 초·중·고 청년사목의 의의를 되새기고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입체미사는 입당(춧불울동), 제1독서(그림극), 화답송(수화), 제2독서(글씨작품), 강론(인형극)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홍보국 정리

● 교구 홈페이지 새롭게 개편

교구 홈페이지(=http://jcatholic.or.kr)가 2006년 1월 2일(월) 새해를 맞아 새롭게 개편했다. 교구 홈페이지는

강성호 피부과
 강성호(이나시오) 박민정(루비나)
 ☎(063)255-8700
 롯데백화점 옆

통신으로 배우는 신학과정(신입생 모집)
 대상: 모든신자
 (만18세이상, 학력제한 없음)
 내용: 신구약성서 및 신학 일반
 원서교부 및 접수: 11/10~2/17
 (우편 및 ci.catholic.ac.kr에서 다운)
 문의: 가톨릭교리화원 통신신학교육부
 02-745-8339(직), 02-747-8501~5(대)

2006학년도 (안동)가톨릭상지대학
신입생 모집-전국 유일의 가톨릭전문대학
 정시 2차 : 2006. 1. 2(월)~1.19(목)
 http://www.csangji.ac.kr 참조
 입시문의: ☎(054)851-3007~8
 FAX (054)851-3009

엠마오하우스 펜션
제주도 관광안내
 제주도 관광하시는 신자여러분의 여행을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차량 및 호텔, 펜션, 민박)
 문의 : 010-4733-5005,
 064-752-6159
 대표 : 최순옥 (가말리)

모든 검도인의 자부심과 희망의 공간
 최고의 시설을 갖춘 16년 전통과 명성의

세심검도관
 국가대표출신, 검도 7단, 18년 대학강의 겸임교수
 이학박사 김태경(빈첸시오) 직접지도
 서신동 분병원 옆
 ☎(063)224-5455
 H·P 011-657-9965

유치원 교사 모집
 자격: 유치원 정교사 2급
 기준: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문의: 564-3529
 주소: 고창군·읍 읍내리 386-1
 고창 성당 부설 유치원
셋별유치원

계축원
경북공음악학원
 독일국립음대졸업 / 음대출강
 원장 : 김미정(크리스티나)
 문의 : 225-6066
 평화동 경북궁 아파트 상가 2층

모든 이와 함께 하는 찬미의 밤
 일사: 1월 14일(토) 늦은 8시
장소: 성요셉 동산(가말리)아름다운 어린이들의 작은 지혜
 문의: 전 마리 요안나 수녀 / 243-1440
 대상: 기도하고 싶으면 누구나
성 요셉 동산 양로원



교구장 일정

- 사제·부제서품자 피정
1월 11일(수)까지
- 사제·부제 서품식
1월 12일(목) 오후 2시 중앙
- 교구 레지아 신년 하례식
1월 14일(토) 오후 2시 중앙
- 남성 79차 꾸르실로 미사
1월 15일(주일) 천호

미사·행사·모임

- 가정성화 미사
1월 9일(월) 오전 11시 치명자산 성당
- 교구 사회복지후원회
사랑의 다리 군산 월례미사
1월 9일(월) 오전 10시 30분 나운동
- 사제·부제 서품식
1월 12일(목) 중앙 오후 2시
- 남성 79차 꾸르실로
1월 12일(목)~15일(주일) 천호
-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기관 신년하례식
1월 13일(금) 오전 11시 센터
- 선택 주일
1월 13일(금)~15일(주일) 나바위 피정의 집
대상: 20세이상 미혼 남녀
참가비: 75,000원
신청: 011-1778-6618 청소년교육국
- 익산 하나회 미사
1월 15일(주일) 오후 2시 부송동

교육·피정·연수

- 교구전례위원회 연수
1월 9일(월) 오전 10시 슈류
- 초등부 복사단 연수(3, 4차)
1월 9일(월)~11일(수) 해월리
- 사회교정사목 상담 봉사자 교육
1월 11일(수) 오후 1시
- 1월의 영화(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제목: 댄서의 순정
내용: 가슴속에 번지는 특별한 사랑
시간이 흘러도 애잔하게 기억될
순수한 그들의 사랑이야기...
일시: 1월 11일(수) 오후 2시 센터 3층
문의: 홍보국 285-0041 / 상영시간 110분
- 묵상 관상 기도 피정
1월 12일(목) 오후 2시 복사(미사 있음)
문의 016-332-8789 가르멜 동정녀회

기타

- 전주가톨릭신학원 신입생 모집기간 연장
대상: 성서교육과, 교리교육과,
신앙연수과
기간: 1월 13일까지
문의: 행정실 255-2678
- 전주가톨릭신학원 교리교사 /
말씀의 봉사자 갱신기간 연장
대상: 신학원에서 파견받으신 모든 분들
기간: 1월 13일까지
- 선녀머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모집
활동분야: 가사도우미, 밑반찬 및 도시락
배달, 차량봉사
활동시간: 월~금 주1~2회(회당 2시간)
문의: 정관일 232-0334, 286-0334

알림





- 가톨릭센터 신축 기금마련
녹중탕(鹿重湯) 판매
이 제품은 독지가의 기증을 받아 200
명분 한정 판매, 전액 가톨릭센터 신축기
금으로 사용됩니다.
효능: 녹용과 각 한약재가 갖고 있는
효능을 극대화한 최고의 명약이자 완전한
건강식품.
가격: 50봉 180,000원
문의 및 판매처: 285-2935
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교사초빙(해성 학원)
1. 교사초빙 학과 및 인원
영어 0명, 수학 0명, 음악(성직자 또는
수도자) 0명, 종교(성직자 또는 수도자) 0명
- 2. 자격
교원 임용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3. 제출 서류
①이력서 ②자기소개서(A4 2매이내)
③대학교 성적증명서 ④고등학교 생활
기록부 사본 ⑤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⑥교원자격증 사본 ⑦호적 등본
- 4. 제출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0-6 학교법
인 해성학원(가톨릭센터 내) 285-0041
- 5. 접수기간
2006년 1월 12일(목)~18일(수) 오후 4시까지
- 6. 전형 방법
전라북도교육청 또는 성심여중·고 및
해성중·고 홈페이지 참조
- 천주교 전주교구에서는 전주시 금상동
(舊소리개재)에 성당을 신축 (2005년 8월
말착공) 하면서 납골당을 분양합니다.
납골시설요금:
160만원~200만원(개인실)
300만원~380만원(부부실)
분양문의: 교구청 관리국 286-0091

새 가톨릭센터 신축현금 내역(12/26~31)

재경신우회 송속자(100,000), 정소영(50,000)
심원식(1,000,000)
성가정 어린이집 (500,000)

2006년 사제품 대상자 서품 성구

 김정수 부제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 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 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15,16)	 박성환 부제 “두려워 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 릴래야로 가라 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마태 28, 10)
 전보근 부제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시편 27,1)	 성현상 부제 “용기를 내어 라. 내가 세상 을 이겼다.” (요한 16,33)

폭설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농촌사목과 정의구현사제단은 1월 15일
까지 가톨릭센터 1층 '온가'의 '여러분에게 내어주는 가게'에서 생활필수품을 받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282-4204, 285-004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전주 지구 본당 소식

고 산

주임신부: 263-4019 사무실: 262-4171 주임신부: 이태주
수녀원: 263-4110 서목회장: 김중서

◎ 오늘은 재해의연금 2차현금 있음

1. 사제, 부제 서품식: 12일(목) 후2시 중앙성당
*서품자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2. 초등부 교리교사 총회: 12일(목)-13일
3. 청년회 총회: 14일(토)-15일
4. 성가총회 결성식: 22일(일)공식미사후(30-50대 남녀)(*계시판 참조바람)
5. 금주 미사 시간 변경: 10일(화) 전6시, 11일(수) 후7시30분, 12일(목) 전6시
6. 감사합니다: ①감사헌금- 안희인(5만), 송인정, 성우희(각3만원)
②정병식-돼지3마리
7. 금주 모임: 일-꾸리아회, 청년회, 구역모임, 금-제대회, 빈센시오회
8. 금주 성당청소: 천호공소
- 지난해 봉헌금: 1,313,300원 ■ 교무금: 5,885,000원
- 사랑의성금: 150,500원

금 암

주임신부: 251-1912 사무실: 251-1911 주임신부: 김오약
F A X: 251-3850 수녀원: 253-0325 서목회장: 나인구

◎ 오늘은 주님 공헌대축일입니다.

1. 폭설로 인한 재해의연금 2차현금 있습니다.
2. 예비신자 모집: 교리시작: 수요일 - 2월1일(수) 전 10시
목요일 - 2월2일(목) 후 7시30분, 일요일 - 2월5일(주일) 전 8시
* 한세대 한복씩 인도 합니다.
3. 정미카엘라 수녀님 피정: 13일(금)-22일(일)
*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4. 설(구정) 합동 위령미사: 29일(주일) 예불절수 - 사무실(27일까지)
5. 금주 모임: ① 12구역 남성구역 모임 - 9일(일) 후 6시30분
② 여성분과 모임 - 10일(화) 전 10시미사 후 ③ 애령회 - 10일(화) 후 7시30분
④ 성모회 - 12일(목) 전 9시 ⑤ 성심회 - 13일(금) 전 10시
⑥ 문호회 - 15일(주일) 교중미사 후 6. 감사헌금: 김상인 5만
- 지난해 봉헌금: 2,086,410원 ■ 교무금: 4,121,000원

봉 동

주임신부: 261-1005 사무실: 261-1004 주임신부: 범영배
F A X: 261-1006 서목회장: 김진호

◎ 폭설로 인한 재해의연금 2차 봉헌 있습니다.

1. 금주모임: ①꾸리아, 구역장모임 - 공식미사후.
②안희회 - 11일(수)후8:00.
2. 차주모임: ①성모회, 올드레아, 까리파사회 - 공식미사후.
②돈보스코회 - 18일(수)후8:00.
3. 금주전례: 해설 - 심희숙 독서 및 복사 - 장현철, 이용숙.
제물봉헌 - 권종근(오셀)부부.
4. 차주전례: 해설 - 김병현 독서 및 복사 - 원문환, 이준희.
제물봉헌 - 황호경(바로)부부.
5. 미사안내: 금주 - 바다의 별Pr, 차주 - 구세주의 어머니Pr.
6. 불우 이웃돕기: 현대자동차 가톨릭사우회 백미10키로 50포,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200만원, 감사합니다.
- 지난해 봉헌금: 1,457,600원 ■ 교무금: 1,860,000원

소 양

주임신부: 244-1771 사무실: 244-3007 주임신부: 양재철
F A X: 244-3010 서목회장: 유영수

◎ 오늘은 주님공헌 대축일이며 폭설 재해민을 위한 2차현금이 있습니다.

1. 금주 모임: 요셉, 안나, 바로로, 모니카, 밀알, 아가페회-공식미사 후
2. 차주 모임: 올드레아 - 공식미사 후
3. 푸른군대 모임: 12일(목), 전9:30
4. 병자 영성체: 오늘 오후 2시부터
5. 사제(부제)서품식: 12일(목), 후2시부터, 중앙성당
6. 차주전례: 해설 - 황영자, 독서 - 김창환, 정은자
기도 - 조명례 복사-김인식, 이희규
예물봉헌-백준화(라이문도), 김영자(둘니나) 부부
차량은행 - 유복련(베드로)님
7. 성당 청소: 신교구역
- 지난해 봉헌금: 756,550원 ■ 교무금: 1,224,000원

아 중

주임신부: 244-2268 사무실: 244-6768 주임신부: 전종복
F A X: 244-6767 수녀원: 244-6762 서목회장: 홍성준
홈페이지 http://www.cjung104.net

◎ 오늘(8일)은 폭설 피해 복구 지원을 2차 헌금 이겠습니다.

1. 금주 모임: ① 차모회, 모니카회 - 11일(수) 미사 후
② 성모회 - 13(금) 후 6시 2. 구역 방정 임명
1 구역 - 조우승, 황복순, 강정자, 2 구역 - 이미자, 김동향, 장운주, 이강준, 강인숙, 이덕희, 서남주, 정병자, 3 구역 - 이미자, 김인숙, 이정남, 오명숙, 김인숙
4 구역 - 조준숙, 김영숙, 김덕기, 박봉남, 5 구역 - 김복래, 김경숙, 배미영, 송영민, 6 구역 - 양옥에, 박오정, 김순남, 7 구역 - 오정희, 이덕원, 오정자, 김원준, 8 구역 - 안철식, 안철남, 김이타, 박재현, 김영자, 9 구역 - 김복순, 김희남, 박은희, 노옥희, 10 구역 - 서계경, 장단순, 11 구역 - 문미선, 이영선, 김윤미, 김희영, 12 구역 - 김근복, 김은희 * 수고하셨습니다.
3. 가톨릭 센터 건립 기금: 신인 6세대, 신인애 156만원
신인 총 제대는 167세대, 신인 총액 7,908만원 감사합니다.
4. 감사헌금: 서다석 - 1만원, 서남부, 성동부 - 삼백만원 원찬희 - 삼십만원, 김복순 - 오만 감사합니다. 5. 금주 청소: 8구역 1,2만
- 지난해 봉헌금: 2,065,370원 ■ 교무금: 13,161,000원

용 진

주임신부: 244-3218 사무실: 244-3217 주임신부: 서철승
F A X: 243-3217 서목회장: 남기홍
홈페이지: http://cafe.daum.net/jcatholic

◎ 봉사골 석산반대 전파농성이 해로 3년째 접어 들었습니다. 고생하고 있는 두억과 신촌 구역 신자분들, 주민들께 격려를 보냅니다.

◎ 남기홍 사목회장님을 비롯해서 3대 사목회 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4대 사목회 임원님들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목회장:이부조, 부회장:이동진, 김봉자, 선교:옥상호, 박남신, 여성:최도화, 이양순, 송현숙, 안숙자, 전래:차재례, 김희순, 소현옥, 구역:주경순, 구순애, 재정:황의준, 교육:김선중, 홍보:이인기, 청소년:황준성, 이상철, 애령:이종식, 차모:조순, 사목관:황경력, 이관정, 사회복지:이순오, 감사:정대호, 권이영)

1. 금주모임: 대건회, 꾸리아 - 교중미사 후
2. 차주모임: 요셉회, 셋별회 - 교중미사 후, 제대회 - 17일(화) 저녁미사 후
3. 오늘은 폭설피해 돕기 2차 헌금 있습니다.
4. 금주청소: 암정, 오삼 구역, 차주청소: 신촌 구역
- 지난해 봉헌금: 721,000원 ■ 교무금: 300,000원

우 아

주임신부: 241-1273 사무실: 241-1274 주임신부: 권이복
F A X: 241-1275 서목회장: 노승남
홈페이지: http://www.wooa.or.kr

◎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나요.

◎ 전년도 교무금 완납과 금년도 교무금 신임을 부탁드립니다.

1. 금주 모임: ① 반석회, 올드레아 - 교중미사 후
② 아가페회 - 11일(수) 미사 후
2. 차주 모임: ① 대건회 - 교중미사 후
② 성심회 - 19일(목) 미사 후
3. 오늘 폭설로 인한 재해 의연금 (2차헌금) 있습니다.
4. 사제, 부제 서품식: 12일(목) 오후 2시(중앙성당)
5. 병자 봉성체: 13일(금) 오전 9시30분
6. 감사헌금: 정희선(안드레아) 20만, 익명 10만, 익명(2명) 각 5만
7. 차주 성당청소 및 미사안내: 천주의 성모Pr
- 지난해 봉헌금: 1,801,800원 ■ 교무금: 3,820,000원

인 후 동

주임신부: 243-5223 사무실: 242-5022 주임신부: 한기훈
F A X: 241-8317 수녀원: 245-8875 서목회장: 황옥현
홈페이지: http://fr.catholic.or.kr/hkh59
정년기념: http://cafe.daum.net/christhaha

◎ 오늘은 주님의 공헌 대축일입니다.

◎ 오늘은 폭설로 인한 재해의 연금: 2차 헌금 있습니다.

1. 오늘 모임: ① 바로로회 - 교중미사 후
2. 주간 모임: ① 켈마회 - 13일(금)전10시30분
3. 환우 봉성체: 13일(금) 후 2시
* 환자들 모시고 있는 가정은 사무실에 신청(전화)바랍니다.
4. 새영세자 지속적인 신앙교육을 위한 만남의 자리: 8일(일)교중미사 후 강당
5. 미납된 교무금, 교구신축헌금 납부 하시고 06년도 교무금 신임 바랍니다.
6. 가톨릭센터 신축헌금신입: 이병일, 서용식, 이인백, 노영조, 각50만; 강점남, 30만;
* 다음주 계속
7. 성당 청소 담당: 1월14일(토): 인자하신 동정녀, 성모성심
의부(남성)청소: 상지의 옥좌
8. 보편 지향 기도 및 봉헌: 금주 - 우아구역 차주 - 성략구역
- 지난해 봉헌금: 1,624,910원 ■ 교무금: 3,334,000원

중 앙

주임신부: 277-1713 사무실: 277-1711 주임신부: 김동준
보좌신부: 278-1713 수녀원: 277-1714 보좌신부: 정은진
F A X: 253-1714 서목회장: 박동근

◎ 자세한 공지사항은 중앙성당 소식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5년도 교무금을 완납해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교무금을 정성껏 신임 바랍니다.

1. 폭설로 인한 재해의연금 2차현금: 1월 8일(오늘)에 있습니다.
2. 사목회: 1월 8일(오늘) 교중미사 후에 있습니다.
3. 병자 봉성체: 1월 11일(수) 오전 10시부터 있습니다.
4. 사제·부제 서품식: 1월 12일(목) 오후 2시, 사제 - 4명, 부제 - 6명
5. 매일 성서쓰기(구약성서): 1월 둘째주에는(1월 9일(월)~1월15일(일))
사우엘기 상권 4장부터 ~ 6장까지 읽니다.
- 지난해 봉헌금: 2,672,700원 ■ 교무금: 10,333,000원

호 성 동

주임신부: 241-0075 사무실: 241-1140 주임신부: 연이복
보좌신부: 243-6733 수녀원: 244-0094 보좌신부: 박연옥
F A X: 241-1226 홈페이지: http://hosong.or.kr 서목회장: 이영수

◎ 오늘은 폭설로 인한 이재민 돕기 2차 헌금 있습니다.

◎ 사제, 부제 서품식: 1월12일(목) 후2시, (이용재(요셉) 학사님 부제 수품)
* 많은 기도와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예비자 교리반 모집: 일교식-2월12일(주일)교중미사 중
* 선교는 신자들의 의무이며 사명입니다. 각각 한 분씩 인도바랍니다.
2. 환자방문: 1월10일(화)요일, 대상자 미리 사무실에 연락바랍니다.
3. 주간모임: ①호성회, 요셉회-8일(주일) 교중미사 후
②청년회 정기총회-8일(주일) 저녁미사 후, ③제대회-10일(화) 오전미사 후,
④전례단모임-10일(화) 저녁미사 후, ⑤성모회-13일(금) 오전미사 후
⑥사목회-13일(금) 저녁미사 후 *사목위원님들 전원 참석 바랍니다.
4. 교구청 신축헌금 신입: 지난해-1,410천원, 누계- 268,330원 *감사합니다.
5. 감사헌금: 정세호, 익명-각10만 *감사합니다.
- 지난해 봉헌금: 2,762,020원 ■ 교무금: 2,249,000원



새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 현황 (2005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천원

구분	예산	납부액	비율
본당	15,000,000	3,482,775	23.22%
사제단	1,000,000	467,641	46.76%
개인 및 타지역 (특별헌금)	1,500,000	382,528	25.50%
수익사업	500,000	221,808	44.36%
합계	18,000,000	4,554,752	25.30%

- 새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배정액 70% 이상 납부한 본당 : 임실
- 신축기금 배정액 50% 이상 납부한 본당 : 삼례, 옥봉, 여산
- 신축기금 배정액 40% 이상 납부한 본당 : 금암, 봉동, 중앙, 서신동, 상삼례, 팔복, 대야, 월명동, 조촌동, 팔마, 신태인, 쌍교동, 진안, 금마, 나바위, 황등, 원평, 장수

폭설 재해 성금을 보내주신 은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평화가 새해를 맞는 우리 교구의 모든 가정과 형제자매님들에게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피부로 체험하였듯이, 지난 12월에 우리 지역에 내린 폭설(暴雪)로 인하여 많은 본당, 공소, 가정에서 큰 어려움들을 입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어려움들이 가중되어 온 우리의 농축산 가정들이 이번의 폭설피해로 인하여 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여러 교구의 주교님, 기관, 개인들이 우리교구에 직접 성금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교구와 은인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교구도 이번 폭설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과 십시일반(十匙一飯)의 애금정신(哀矜精神)으로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이번 주일에 2차 현금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기다립니다.
항상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에 감사드리며, 거듭 새해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2006년 1월 2일 성 바실리오와 나지안조의 성 그레고리오 축일에

교구장 이 병호 빈첸시오 주교

▶ 타 교구에서 보내온 폭설 재해 성금 현황

(2005년 1월 2일 현재)

△서울대교구 사회복지회 :	50,000,000	△대 전 교 구 :	20,000,000
△서울대교구 반포성당 :	10,000,000	△부 산 교 구 :	10,000,000
△서울대교구 잠원동성당 :	5,000,000	△안 동 교 구 :	10,000,000
△서울대교구 길동성당 :	2,000,000	△성가소비녀회 :	20,000,000
△울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녀회 :	3,000,000	△순교복자 수도회 :	1,000,000
			합 계 : 131,000,000